

넥스트레이드 2기 출범... ‘복수거래소’ 성장 속 제도개선 과제

김학수 대표이사 연임 확정

출범 8개월 만에 점유율 30% 돌파
12시간 거래·수수료 경쟁 확산세
15%를 규제에 성장세 제도 걸려
자본시장 선진화 제도 손질 시급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2기 체제에 돌입했다. 김학수 대표가 지난 11월 1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하며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불과 8개월 만에 복수거래소(dual exchange) 체제를 시장에 안착시키며 거래 시간 확대, 수수료 인하 경쟁, 주문 효율화 등 선진국형 거래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한국거래소 대비 거래량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15%룰’)가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으로 지목되며, 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2기, 김학수 대표 리더십으로 안정적 성장 궤도 진입

김학수 대표는 2022년 11월 넥스트레이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시장 제도 구상, 전산 인프라 구축, 인가 취득 등 ATS 출범의 전 과정을 주도지휘해온 인물이다.

업계에서는 그를 “국내 복수거래소 제도 안착의 주역이자, 자본시장 구조를 새로 설계한 개척자”로 평가한다.

그는 주총에서 “투자자 친화적 거래문화로 더 성장하는 ‘넥스트레이드 2.0’을 만들겠다”며 “전산 인프라 경쟁력과 거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넥스트레이드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래 안정성을 유지하며 미래 주식거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장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을 개설해 하루 12시간 거래를 구현했다.

또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을 도입해 주문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연 2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보다 여유로운 투자문화와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구현한 셈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3년 내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이를 이미 조기에 초과 달성했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비중은 3월 3.8%에서 6월 32.4%로 급등했다. 일평균 거래대



ChatGPT로 생성한 ‘넥스트레이드에서 증권 거래 중인 투자자들 모습’

금은 약 10조원으로, 한국거래소의 30% 수준에 달한다.

이러한 급성장은 70년 가까이 단일 체제로 운영돼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에 균열을 냈고, 실제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를 의식해 수수료 인하와 12시간 거래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자본시장에 메기효과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나온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상장지수펀드(ETF),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으로 거래 대상을 넓히고, 데이터 비즈니스 유료화를 통해 글로벌 ATS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투자자 신뢰와 시스템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래 인프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5%룰’이 막은 복수거래소 성장 동력... 자본시장 선진화 발목

하지만 급격한 성장세는 곧 제도적

한계와 맞닥뜨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일명 ‘15%룰’이다. 이 규제는 2013년 ATS 제도 도입 이후 2015~2016년 한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현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종목 축소를 반복해야 했다. 8월 20일 79개, 9월 22일 66개, 11월 5일 20개 종목이 잇따라 제외되며 거래 가능 종목은 795개에서 630개로 줄었다. 넥스트레이드가 발표한 ‘한도 관리를 위한 매매 체결 제외 종목(11월 5일 기준)’에는 카카오, 한국전력, 예코프로, 한미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단순한 ‘비중 관리’가 아니라 투자자 접근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프리마켓과 애프터

마켓은 넥스트레이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제한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해당 시간대에 리밸런싱이나 해외 뉴스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3개월간 150여 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실제 불편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15%룰’이 자본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월 보고서에서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약 9.1% 증가해 단순 분산이 아닌 파이 확대 효과가 있었다”며 “현행 상한규제가 이런 성과를 지속적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규제 구조의 불합리성도 문제다. 현재 점유율 산정 시 ‘시장 전체 거래량’이 아닌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분모로 삼고 있어, 실제보다 높은 비율로 계산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넥스트레이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분까지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글로벌 ATS처럼 자율적 시장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유입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15%룰’은 시장의 유동성과 상승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ATS 거래 비중이 전체의 30~40%에 달한다. 반면 국내는 제도상 상한으로 인해 시장 확대 속도가 제한돼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서학개미, AI 급락에도 반도체 ‘매수 행진’

해외주식 Click

AI 거품론 속 엔비디아 집중 매수
빅테크 급락장, 레버리지 확대
美 증시 조정에도 ‘불나방’ 투자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도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자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까지 높이면서 ‘불나방’ 면모를 보이고 있다.

11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4~10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3억512만달러를 사들였다. 다음으로 많이 담은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1억9970만달러)이며, 기술주 고평가 우려에 조정받았던 팔란티어도 1억8336만달러 순매수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AI 거품론’이 재부각되면서 관련 기술주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팔란티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다음날 주가가 7.9% 하락했다.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3거래일 동안 주가가 15.5% 빠졌다. 반대로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메타도 실적 발표 직후에만 11.3% 급락했다. 10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17% 하락했고,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지난주 두 종목에 대한 투자를 더욱 집중했다. 메타와 팔란티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각각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메타 볼 2배 ETF’(5736만달러)와 ‘디렉시온 데일리 팔란티어 볼 2배 ETF’(4775만달러)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라면서 집중 투자하는 흐름을 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증권 ‘AT WORK’, 법인 임직원 10만명 ↑

계약법인 400곳 돌파... 복지확산 가속

삼성증권의 ‘AT WORK’가 주식 기반 보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삼성증권은 법인 맞춤형 복지·보상 플랫폼 ‘삼성증권 AT WORK’를 통해 주식보상을 받은 임직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시에 ‘AT WORK’를 도입한 법인 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며 400곳을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14개로 가장 많고, 도매업·IT·바이오 등이 참여 증으로, 국내 대표 IT기업과 대기업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다.

‘삼성증권 AT WORK’는 스톡옵션, 제한조건부 주식(RSU), 임직원 주식매입 프로그램(ESPP) 등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또 해당 기업 임직원에게는 삼성증권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상장기업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모니터링, 해외주식 직접입고 기능 등 법인 담당자를 위한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임직원 주식보상제도는 글로벌 선진기업에서는 이미 핵심 인재 확보와 유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신하은 기자

두산,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 ‘신고가’

GB300·GB200 서버 호조
증권가, 목표가 일제 상향 조정

두산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7.99% 상승한 101만40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108만2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날 두산은 올해 3분기 열결 기준 매

출액 4조4524억원, 영업이익 23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14.8%, 109.9%씩 증가한 수치다.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두산이 4분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주가도 기준 100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주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4분기 GB300 랙서버의 양산 확대와 GB

200 서버의 주간 생산량 확대 등에 힘입어 매출액 5499억원, 영업이익 1652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269%씩 성장한 수준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내년 연말 기준 서버 제조자개발생산(ODM)의 분기별 랙 서버 출하량이 전년 대비 35%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도 이날 두산에 대한 목표주가를 116만~133만원 수준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신한운용, 메가테크 ETF 2500억 돌파

리테일 자금 유입에 16배 성장
AI·전력인프라 테마 수익률 ↑

신한자산운용은 ‘SOL 코리아메가테크 액티브 ETF’의 순자산이 2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 달간 개인투자자 및 은행 중심의 리테일 자금이 1150억 원 이상 유입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161억원에 불과하던 순자산이 16배 증가했고, 한달가에만 1700억원 이상 늘었다.

수익률도 우수하다. 10월 기준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수익률은 각각 15.29%,

32.54%, 74.55%로,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2.81%, 26.89%, 58.04%)을 크게 상회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 역시 120.52%로, 코스피(69.75%)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김기덕 신한자산운용 퀀트&ETF 운용본부장은 “지나해부터 액티브 포트를 통해 전략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온 인공지능(AI) 전력인프라 테마가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저장장치(ESS) 모멘텀이 부각되며 신규 편입한 종목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